

# AI 확산 전남, 수의직 전문인력이 없다

### 목포·여수 등 7개 시·군 아예없어...효과적 방역 못해

### 찾은 AI에 격무 시달리고 이직률 높아...지원자도 부족

전남도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이 전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 소속 방역 전문인력인 수의직이 아예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고작 1~2명에 그쳐 효과적인 방역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등 7개 시·군에 수의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반복되는 AI로, 업무가 폭증하면서 이직률이 높고, 지원자마저 없기 때문이다.

해남, 완도, 진도의 경우 매년 수의직 채용공고를 내고 있으나 5년 이상 지원자가 없고, 장흥, 강진 등은 수의직이 1년도 채 안 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군은 수의직 대신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AI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AI가 발생하면서 수의직 등 방역전문인력, 담당 실·과 직원은 아군은 물론 주말도 없이 근무해 과로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AI에 대해서는 메뉴얼이나 지침대로 직원들이 힘들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며 "다만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내에서는 지난달 16일 해남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지난달 18일 무안 오리 농장, 지난달 28일 나주 씨오리 농장, 지난 4일 장성 산란계 농장 등 4곳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강진만 고니 사체에 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현장에는 방역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중앙에는 과도하게 배치되어 방역 조직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축 질병 관련 국내 방역조직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축이 된 중앙

방역기관과 일선 지자체 산하 지방방역기관으로 구분된다.

이들 방역기관에는 방역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수의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산하 수의직 공무원은 300여명에 이른다. 반면 가축방역관이라고 부르는 일선 지자체의 수의직 공무원은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가축방역관은 270명 안팎으로 1곳당 1.2명 수준이다. 농식품부 적정 기준대로라면 1곳당 최소 2명 이상의 가축방역관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50곳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 대통령 때문에 국민 정신적 피해” 첫 민사소송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시민 5천명 소장 제출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인강의 광상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과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했다. 그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1만여명 중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혼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잘 알려진 과 변호사는 앞서 주택용 전기요급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과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법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과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했다. 그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1만여명 중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혼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 軍 내부망 해킹 中선양서 접속...北소행 추정

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을 해킹한 IP주소가 북한 해커들이 많이 활동하는 중국 선양에 소재하고, 해킹에 활용된 악성코드도 북한이 그동안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를 근거로 이번 군 내부망 해킹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6일 “군 내부망을 해킹한 해커들은 중국 선양에 있는 IP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킹에 쓰인 악성 코드도 북한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도면 해킹사건 등에서 선양에 있는 IP주소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군 당국이 그동안 ‘내부 국방망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한 부대의 백신 중계서버에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함께 연결되면서 내부망까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예하부대의 한 서버에 접점이 있었다”면서 “이 부대의 서버에 인터넷망과 국방망 랜카드가 모두 꽂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을 해킹한 IP주소가 북한 해커들이 많이 활동하는 중국 선양에 소재하고, 해킹에 활용된 악성코드도 북한이 그동안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를 근거로 이번 군 내부망 해킹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6일 “군 내부망을 해킹한 해커들은 중국 선양에 있는 IP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킹에 쓰인 악성 코드도 북한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도면 해킹사건 등에서 선양에 있는 IP주소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군 당국이 그동안 ‘내부 국방망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한 부대의 백신 중계서버에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함께 연결되면서 내부망까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예하부대의 한 서버에 접점이 있었다”면서 “이 부대의 서버에 인터넷망과 국방망 랜카드가 모두 꽂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언론중재법 개정안 헌법가치 침해...폐기하라”

###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 성명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는 새누리당 광상도 의원이 지난 10월28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언론3단체는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誤報)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토록 한 것은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성명은 광상도 의원과 언론중재위원 공동 주최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 즈음해 발표했다.

3단체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오보가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

라도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 등은 개정의 취지에 대해 ①오보인 기사를 ②인터넷 검색 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토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명은 “개정법률안의 법 문은 그렇게 써여지지 않다.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든 법조문이든 ‘해’를 뜻하려면 ‘해’라고 써야 한다. 달이라고 써 놓고는 ‘해라’ 뜻이니 그렇게 읽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3단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의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이다.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박근혜 대통령 퇴진”

### 불교 조계종 성명

대한불교조계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조계종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단 내 일부 스님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적은 있으나 종단 차원에서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본래의 뜻을 얻고, 보이는 것만 훑다 보면 근본을 잃는다’는 의미의 ‘귀근득지 수조실종’(歸根得旨 隨熙失宗)이라는 경전 구절로 말문을 연 뒤 “대통령은 민심을 천심으로 여겨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 상황에서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만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자승 스님은 이어 “국민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확인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여야 정치인들도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야 한다고 지적하고 탄핵안 가결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자승 스님은 여야 정치인들을 가리켜 “민심을 바로 본다 하되 바로 보지 못했고 국가를 위한다 하되 그러하지 못했다. 발로 참회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인에게서는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가 대통령의 탄핵에 있는 만큼 눈앞의 당리당략에 따라 조변석개하지 말고 민심을 울골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천주교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등은 지난달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로자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 불교사회연구소, 정의평화불교연대, 불교환경연대 등 범불교단체 회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하늘 아래 첫동네’ 지리산 심원마을 철거

### 19가구 주민보상 완료...반달곰 생태 공간으로

지리산 달골계곡 가장 높은 곳에 있어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심원마을이 자연 속으로 사라지고 반달곰습지 등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생태지로 바뀐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3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9가구 건축물 52동과 용지 10만318㎡의 주민 보상을 최근 완료하고 철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가 개통되면서

취락 중심의 마을에서 벗어나 식·산·수 등 삼업시설로 변질해, 국립공원 심층부 훼손과 계곡 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주민 보상을 완료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심원마을 내 기존 건축물 52동, 진입도로 870m(폭 6m), 마을 내 포장, 울벽 등을 철거한다.

심원마을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 만백대(1438m)를 꼭짓점으로 하는 약 18㎢의 부지에 출입이 사실상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지역을 핵심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관리해 반달곰습지 등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만들 계획이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 혈당조절

###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삼백미(풍나루리) 곱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요청

010-3598-7080

##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 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수업기간: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 2017학년도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광주국제기독교학교(GICCS)는 크리스천 특목학교로서 영성·영어·자율의 정신에 기초하여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유학의 꿈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미국의 크리스천 사립학교, 칼리지와 자매 결연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과 신앙 공동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주님의 일꾼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과정**

- 미국 고교 편입 및 입학
- 미국 칼리지 편입 및 입학
- 미국 4년제 대학 편입
- 국제반 - 초등 중등 과정(영학)
- 미국 현지 실시간 화상영어 과정
- 국제반 - 초등 중등 과정(국내대학)
- English Summer Camp
- 미국 텍사스 탐방 캠프
- 국제반 - 고등과정 (유학)
- 국제반 - 고등과정 (국내대학)
- 미국 대학 진학과정 (유학)

**2. 특 전**

- 크리스천 우대
- 소수정원제 수업
- 최상의 기숙사 환경
- 미국학교 입학사서지 미국 현지 본교(GCDS)
- 담당자의 지속적 학사관리
- 다수의 미국 현지 고교, 대학들과 최선의 교육 인프라를 통하여 미국 고교 편입과 미국 4년제 대학에 편입하게 됩니다.

**3. 신입생 추가모집 및 입학설명회**

**대상**

- 국내 중·고교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
- 국제반 조기 입학에 원하는 학생
- 미국고교 및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모집과정 및 인원**

- 국제반 0명 초등 중등과정(영학)
- 국제반 00명 초등 중등과정(국내대학)
- 국제반 0명 고등과정(영학)
- 국제반 00명 고등과정(국내대학)
- 일시: 2017. 1.5(목) ~ 2017. 1.16(월)
- 오전 11:00시 ~ 12:00시

**4. 특별전형 (장학생 선발)**

- 대상: 초·중·고
- 1차 전형: 영어·수학
- 2차 전형: 학교장 면접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생활기록부
- 전형일시: 2017. 1.9(월) 오전 11시
- 합격자 발표: 2017. 1.16(월) 오전 11시
- ※단, 기숙사비용은 장학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국제기독교학교 홈페이지 참조 (www.giccs.com)
-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입학 담당자
- Tel: 061-381-0000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 동동길 42-34 (성도리 산 72) Tel: 061-381-1365